

후기고딕 초상화의 헤드 드레스를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박 소 연 · 김 혜 경*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하거나 작가의 감성과 개성,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색채와 형태로 표현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도는 인물과 의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던 중세 말 후기고딕 시대의 회화에서 발견된다. 후기고딕 시대의 회화는 종교적 목적뿐 아니라 세속적이며 환상적인 주제가 유행을 하였으며 화가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인물이 착장하지 않았던 의복을 표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는 인체를 과장, 왜곡하여 독창적인 인물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고 각종 필사본 채색과 초상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초상화는 신 중심사상에서 인본주의적 사고로 변화되면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필 초상화가 발전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인물의 포즈에 있어서 사실적 묘사보다는 이상적인 미의 표현이 가능한 측면 상반신으로 주로 나타났다.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색채의 대비 효과와 헤드 드레스에 표현된 장식성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충분히 재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예술적 가치와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후기고딕의 헤드 드레스를 응용한 발상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결과, 후기고딕 초상화의 특징 6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헤드 드레스는 인물의 캐릭터와 아이디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임을 알 수 있었고 현대적 감각으로도 재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후기고딕 초상화에 나타난 헤드 드레스의 조형미를 응용한 결과 역사적 패션 아이템이 현대적 디자인과 조형 표현의 풍부한 모티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창의적 발상과 표현, 다양한 장식적 요소를 소재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스타일 제안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후기고딕, 고딕 예술, 초상화, 헤드 드레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김혜경, hestia19@naver.com

접수일: 2016년 3월 29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 2016년 5월 16일

I. 서론

1. 연구 목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행을 그린다’는 뜻으로써 의복을 인체에 입혀진 상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Ahm, 2003).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나아가 패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하거나 작가의 감성과 개성,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색채와 형태를 표현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도는 인물과 의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던 중세 말 후기고딕 회화에서 발견된다. 후기고딕 시대의 회화는 종교적 목적뿐 아니라 세속적이며 환상적인 주제가 유행을 하였으며 화가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인물이 착장하지 않았던 의복을 표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는 인체를 과장, 왜곡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인물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고, 각종 필사본 채식화와 초상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초상화는 신 중심사상에서 인본주의적 사고로 변화되면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필 초상화가 발전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인물의 포즈에 있어서 사실적 묘사보다는 이상적인 미의 표현이 가능한 측면 상반신으로 주로 나타났다.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색채의 대비 효과와 헤드 드레스에 표현된 장식성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충분히 재해석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예술적 가치와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후기고딕 헤드 드레스를 응용한 발상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특한 미적 감성을 지니고 있는 후기고딕 초상화의 특징을 응용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의

틀을 제안함과 동시에 예술적 표현 영역을 확대함에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범위는 후기고딕 시대의 독특한 미적 특징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여성 헤드 드레스를 중심으로 연구 한다.

연구 방법은 첫째, 후기고딕 양식과 초상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초상화에 나타난 후기고딕 헤드 드레스의 종류와 특징을 고찰한 후, 후기고딕 시대 가문의 표현과 상징을 제외한 순수한 미적인 목적으로 장식적 요소를 추출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도출해낸 장식적 요소를 응용하여 상반신 헤드 드레스 중심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후기고딕 초상화에 관한 고찰

1) 후기고딕 양식의 개념

일반적으로 후기고딕 시대는 Late Gothic이라고도 불리고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까지의 건축, 회화, 패션 등 전반적인 예술적 양식을 뜻한다. 후기고딕 중 1400년경을 중심으로 한 약 반세기, 플랑드르(Flemish) 화가들의 사실주의와 이탈리아 화파의 영향이 섞인 우아한 궁정 취미의 회화 양식이 등장한다. 이는 유럽 전역으로 퍼진 공통된 양식으로써 이를 ‘국제고딕양식(International Gothic Style)’이라고 부른다(Park, 2007).

고딕(Gothic)이라는 용어는 16세기 중반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 미술사

학자였던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가 로마 문명을 멸망하게 한 게르만인 중 고트족(Goth)을 비웃기 위해 사용되어진 용어이다. 바사리 외 르네상스의 비평가들은 고딕 양식을 천 년 동안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전 문화를 무너뜨린 야만적이고 어두운 문화라며 비판하였고, 고딕은 ‘고트족의, 고트족이 만든’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며 본래 경멸적이고 가치를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Park, 2007).

하지만 18세기에 중세 예술의 재평가에 대한 첫 운동이 있는 후 윌리엄 질핀(William Gilpin), 아우구스트 빌헬름 쉐레겔(August Wilhelm von Schlegel)와 같은 비평가들이 고딕이라는 말을 칭찬의 의미로 적극 활용하였다(Kim, 2002). 현대에 이르러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고딕이 가지는 어둡고 음산한 이미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찬란하고 화려했던 예술적 특징에 관한 진실을 풀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딕 시대는 학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세기경부터 15세기 초까지 약 천 년을 일컫는 중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이다. 그 중 후기고딕 양식은 회화와 건축, 예술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조형적 특징과 플랑드르 화파의 거장인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등으로 인하여 현대에도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2) 후기고딕 초상화의 특징

후기고딕 시대의 전 유럽은 십자군 원정과 백년전쟁을 계기로 교통이 발달하였고 문화의 교류 또한 활발하였다. 특히 동방과의 무역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직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으며, 봉건체제의 붕괴로 인해 도시를 중심으로 길드가 형성되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세속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하였다. 부르주아 계층은 권위와 명예 과시를 목적으로 의복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패션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의복의 종류와 문양, 색 등을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 시기에는 주로 개인의 개성과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표현한 그림인 초상화가 유행하였다. 이는 회화의 한 종류로서 각 시대에 따른 양식이나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의식과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역할을 한다(Lee, 2006).

후기고딕 초상화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측면 구도

후기고딕 초상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인물의 측면 구도에 있다. 공간감과 원근법, 비례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과한 인물표현 보다는 평면적인 구도와 단순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Figure 1>은 1350년경 제작된 최초의 초상화로서 르네상스 이전에 인물 강조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제국의 주화와 메달에 각인된 황제의 옆면 초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구도로써 <Figure 2>와 같이 다양한 후기고딕 시기의 작가들이 모방을 하였다. 초상화에서 측면 구도는 신이 아닌 인간의 권위와 명예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 재료이며, 실존하는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 보다 더욱 이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2) 헤드 드레스의 장식성

후기고딕 시기는 종교적 이념에 의하여 신체의 노출을 꺼리고 정숙함과 순결함을 고귀하게 여겼으며 이는 반대로 헤드 드레스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상반신 프로필 위주의 초상화는 상반신을 부각시키는 구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과 헤드 드레스도 함께 발전하였다. 그림 속 인물의 개성 즉 지위, 권력 등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헤드 드레스는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헤드 드레스의 장식성은 초상화의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다. 대표적으로는 반 에이크의 초상화가 있으며, 그 중에서 <Figure 3>은 반 에이크 부인의 초상화로서 후기고딕 시대의 기혼 여성의 헤드 드레스가 잘 표현되어 있다.

(3) 환상적인 문양

이 시기는 십자군 원정과 백년전쟁 등으로 인하여 동방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기사도 문학이 유행하였다. 그로 인해 후기고딕 양식의 회화는 전반적으로 비현실적 이거나 낭만적인 주제 선정으로 인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꽃문양 등이 주로 나타난다. 궁정문화의 세련됨과 고급스러운 음식, 화려한 의복, 꽃이 만발한 정원은 화가들에게 흥미로운 소재였다. 이러한 소재들은 우아하고 환상적인 세계를 상상하거나 만들기를 좋아했던 군주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Zuffi, 2006/2011).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초상화에 나타나는 장식들은 가문을 상징하거나 권위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Figure 4>의 오른쪽 배경에 표현된 도자기 또한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으로써 독특하며 환상적인 이미지를 준다.

(4) 섬세한 아웃 라인

인물의 섬세한 아웃 라인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것은 후기고딕 양식의 대표적 특징이며 이는 시각적으로 얼굴의 윤곽선을 강조함으로써 주인공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또한 후기고딕 시대 회화의 새로운 양식의 장을 열었던 플랑드르 화파의 작고 선적인 패턴은 현미경과 같은 눈으로 모델과 오브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망원경과 같은 눈으로 전체 화면에 아웃 라인으로 재구성하였다. <Figure 4>는 섬세한 아웃 라인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적 묘사가 되어 있지 않은 인물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하며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5) 양식화된 인물의 표현

고딕 양식의 상징적인 요소인 필사본은 후기로 갈수록 종교적 이념과는 상이한 장식적인 목적의 인본주의적 요소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삽입된 회화들은 현실적인 세밀함과 동화적인 모호함을 평면적인 도식화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화의 양식은 초상화에서도 보인다. 초상화 속 주인공과 인물을 상징하는 오브제는 양식화되어 표현된다. <Figure 1>과 <Figure 6>처럼 인물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아웃 라인의 강약 조절과 도식화된 표현은 헤어스타일, 의복, 문양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6) 색채의 대비

후기고딕 시대의 색채는 신이 주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여겨졌고 화려하며 선명한 색채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주로 사용된 색채는 신의 대리인인 주교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사랑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녹색, 영원한 충실함을 의미하는 푸른색이 있다(Park, 2007). 초상화에서 사용된 색채는 캐릭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비를 통해서 강렬하게 나타났다. 명도 대비, 한난 대비, 보색 대비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Figure 5>와 같은 명도 대비와 <Figure 6>과 같은 한난 대비가 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안토니오 피사넬로(Antonio Pisanello), 반 에이크, 젤레 다 파브리아노(Gentile da Fabriano), 한스 멤링(Hans Memling)이 있으며 이들은 사실적인 묘사보다 실존하지 않는 환상적인 주제를 이용한 상상력 짙은 회화를 주로 그렸으며 이러한 특징은 초상화의 인물과 배경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나타난다. 이는 작가의 감정과 시각적인 추상성, 심미적 가치를 전달하는 현대 시각예술의 한 장르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한다.



Figure 1. 선랑왕 장 2세의 초상화.
From Durand. (2006). p. 151.



Figure 2. 『Medaglia di Cecilia Gonzaga』,
Pisanello, 1447.
From WIKIMEDIA COMMONS. (2013).
<https://commons.wikimedia.org>



Figure 3. 『Portrait of Magarete van Eyck』,
Eyck, 1439.
From WIKIMEDIA COMMONS. (2011a).
<https://commons.wikimedia.org>



Figure 4. 『Portrait de Genevra d'Este dit
aussi Portrait de Marguerite de Gonzague』.
From Kim. (2007). p. 36.



Figure 5. 『Portrait of Maria Portinari』,
Memling, 1470.
From WIKIMEDIA COMMONS. (2005).
<https://commons.wikimedia.org>



Figure 6. 노란 옷의 여인.
From Lee. (2006). p. 62.

2. 후기고딕 초상화에 나타난 여성용 헤드 드레스에 관한 고찰

1) 후기고딕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종류와 조형적 특징

종교적 관념으로 인하여 정숙함과 은폐의 미를 추구하던 복식과는 반대로 세속적인 미에 대한 갈망은 특히 여성의 헤드 드레스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이 절은 화려하고 기형적으로 변화한 헤드 드레스의 종류와 이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다.

(1) 후기고딕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종류

중세시대 여성의 헤드 드레스 문화 전체는 교회 사도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의 말씀을 지키고

자 하였고 이로 인해 머리를 가리는 형태가 발전하였다(Kim et al., 2010).

고딕 시대 미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렸으며,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 카락을 두 갈래로 땅아서 귀가 가려지도록 둥그렇게 말아서 고정시켰고 이를 양뿔(ram's horn) 형태라고 한다(Kim et al., 2010)(Figure 7). 이때 사용되는 크레스핀(crespine)은 머리를 짠 망과 양옆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머리띠로 한 장식을 뜻하는데, 머리망은 15세기까지 중요한 머리장식으로 쓰여졌다. <Figure 3>의 반 에이크의 초상에서처럼 크레스핀은 감싸진 원뿔형의 머리에 레이스 베일이 씌어져 머리는 형태가 상자모양이나 피라미드

(pyramid) 모양 등으로 변화였다(Jeon, 1994). 혹은 두 개의 원뿔형의 머리는 보석이 붙은 머리장식을 씌움으로써 하트 모양의 두식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후기고딕 시기에는 신체를 은폐하는 기독교적 관념을 지키는 대신에 인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실루엣과 의상의 길이가 확장되었고 이는 헤드 드레스에서 기형적인 조형미로서 보인다.

머리장식은 15세기부터 과장되어 머리카락은 위로 높이 빗어 넓은 머리띠로 타이트하게 고정시켰고, 그로 인해 눈썹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얼굴은 상아와 같은 조각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이 시대 여인들의 초상화는 후기고딕 시대의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Figure 4>가 있다. 상아처럼 창백한 안색, 앞머리를 면도하여 넓게 드러난 이마와 열은 눈썹, 이마를 드러내기 위해 뒤로 넘겨 모양을 낸 머리장식은 당시 여인들에게 유행한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다(Lee, 2006). 이는 종교적 관념에 따라서 ‘성녀’ 혹은 ‘성모’와 같은 자태의 여성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 드러난다. 즉 15세기의 옆면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여자들의 모습은 당시의 미의 기준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에넵 부인이 고안해 낸 에넵(hennin)은 ‘불편’이란 뜻의 옛 프랑스에서 나온 말로 패션 용어라기 보다는 고딕이라는 단어의 기원과 같이 기형적인 스타일을 조소하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는 고딕 건축의 숭고함과 수직성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단어로서 이태리에서 등장하여 100년 이상이나 사용되었다. 에넵의 구성은 벨벳, 마 또는 금사나 은사로 짜진 천을 뺏뺏이 하여 45-90cm 정도 위로 원추형의 모자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의 베일을 덮어 극단적으로 옷자락을 늘어뜨렸는데, 베일의 길이는 300-360cm에 달한 것도 있었다(Jeon, 1994). 에넵의 높이는 경쟁적으로 높아졌고 수직적인 높이와 수평적인 넓이에 의해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

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Figure 5).

<Figure 8>과 같이 에넵의 원추형 모자에서 끝을 자른 형태의 머리장식이 생김으로서 기형적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던 높이는 다소 축소되었다. 또는 여성의 넓은 이마를 강조하기 위해 원통형 에넵의 앞부분에 프론트넷(frontlet)이라는 벨벳 루프 장식이 달려 있었으며, 높은 모자를 고정시키기 위한 흑색 벨벳(velvet)의 띠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 후기고딕 시대에만 나타나는 독창적인 버터 플라이(butterfly headdress) 헤드 드레스는 머리에 꼭 맞고 챙이 없는 모자를 머리 뒤에 써서 핀으로 고정시키고 모자의 앞 중심에는 철사로 만든 안테나(antenna)를 놓아 그 위에 베일을 가볍게 붙인 것이다<Figure 9>. 에넵의 변종인 나비 모양의 두건은 어깨보다 넓은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때로는 안테나를 붙이지 않고 직접 모자 위에 붙이기도 하였다. 에넵은 15세기 중엽에 전성을 이루었으나, 불편함으로 인해 1480년 이후 사라지고 말았다.

후기고딕 양식의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 <Table 1>과 같다.

(2) 후기고딕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조형적 특징

후기고딕 시대에는 신체를 은폐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장의 미가 절정에 달하였고 이러한 독특한 조형적 특징은 크게 선과 형태, 문양과 장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선과 형태

후기고딕 시대는 과장된 수직성과 입체적 실루엣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하늘을 향하는 수직선과 섬세한 아웃 라인은 선과 면의 집합체인 회화나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서 창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형 요소이다. 인체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선의 조형미는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헤드 드레스인 에넵을 창조해냈고 이는 의복 역사상 중

Table 1. 후기고딕의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종류와 특징.

종류	특징	대표 사례
양빨 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헤어 스타일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땀아서 귀가 가려지도록 둥그렇게 말아서 고정시킨 형태 	 <p>Figure 7. 14세기 프랑스 마리 공주. From O'Neill. (1987). p. 127.</p>
크레스핀 베일 (하트 모양 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용 헤드 드레스 머리를 쓴 망과 양 옆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머리장식과 그 위를 감싸는 형식의 두르는 원단 	 <p>Figure 3. 『Portrait of Magarete van Eyck』, Eyck, 1439.</p>
에닝 (긴 원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용 헤드 드레스 천을 뿔뿔이 하여 원추형의 모자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의 베일을 덮은 형태 	 <p>Figure 5. 『Portrait of Maria Portinari』, Memling, 1470.</p>
에닝 (원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용 헤드 드레스 원추형 모자에서 끝을 자른 형태 	 <p>Figure 8. 『Potrait of a Young Woman』. From WIKIMEDIA COMMONS. (2011b). https://commons.wikimedia.org</p>
에닝의 변종 (버터플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용 헤드 드레스 모자의 앞 중심에 철사로 만든 안테나를 놓아 그 위에 베일을 붙인 형태 	 <p>Figure 9. 『Portrait of a Woman』. From Vaughan. (2011). p. 54.</p>

교적 이념을 반영하였음에도 세속적인 갈망이 들 어간 독특한 의복 양식을 구축해냈다.

또한 선은 역할로써 크게 기능적인 선과 장식 적인 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Kim, 2013). 의복에서 의 기능적인 선은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장식적인 선은 형태의 입체감과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독창적인 시각 적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다. 후기고딕 양식의 전 체적인 의복 구조는 인체를 잡아주는 기능적인 선 을 넘어선 확장된 선으로써 신을 높은 존재로 인 식하게 하였다. 헤드 드레스의 끝은 높아졌고 인 간은 엄격한 신의 존재로부터 늘 겸손해야하는

존재임을 각인시켰다.

② 문양과 장식

문양은 각 시대의 특징과 유행을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 고대에는 동물의 문양에 여러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인본주의에 기초를 둔 사실적인 꽃문양은 르네상스에서 주로 사용된다. 중세 후기는 이러한 르네상스로 넘어가기 전의 시대로서 환상적이며 동화적인 문양이 주로 보여 진다. 후기고딕 시대는 종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세속적인 조형미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시기로서 자신의 계급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즐겼으며 이후에 문장이나 상징에 집착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Les trè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의 1월 삽화에는 프랑스 왕실의 문장은 금빛 붓꽃이 있으며, 이 외에 거의 대부분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인물 회화에는 문장이 나타난다(Figure 10). 또한 후기고딕 초상화의 조형적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평면적 구도로 인한 양식화 되어있는 문장의 형태가 나타나고, 이는 기사도 문화에 심취해있던 낭만적인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환상적인 해석으로 표현되어 있다(Figure 11).

또한 재단법과 봉제법의 발달로 인해 <Figure 3>과 같이 베일의 레이스 장식과 꽃무늬의 가장자리 장식, <Figure 8>의 앞머리 부분 루프 장식과 같은

헤드 드레스의 구조적인 장식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장식적 요소들은 여밈과 레이스, 톱니모양의 대강(dagging) 장식 등 후기고딕 시대의 의복을 포함한 전체 패션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Figure 12), (Figure 13).

이처럼 헤드 드레스는 중세 초기의 단순히 정욕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가리는 용도에서 벗어나 이 시기에는 색의 발달과 함께 가문의 문장뿐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표현하는 문양과 장식으로서 발전하게 된다.

III. 작품 제작 및 해석

1. 제작 의도 및 방법

후기고딕의 대표적인 헤드 드레스인 에벡의 원통형, 에벡의 변종 형태인 버터플라이 두식, 에벡의 원뿔형, 양뿔 모양 두식과 레이스 베일을 작품의 주요 응용 모티브로 정하였다. 색채는 이 시기에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주교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사랑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녹색, 영원한 충실함을 의미하는 푸른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순수하고 강렬했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다.

후기고딕 초상화에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Figure 10. 『Les trè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 1415-1416. From Vaughan, (2011). p. 39.



Figure 11. 후기고딕 기사와 부인의 의복에 나타난 가문의 문장. From Laver, (1982).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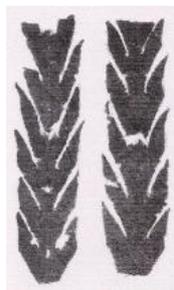


Figure 12. 후기고딕 양식 소매 대강 장식. From Crofoot et al. (2006). p. 196.



Figure 13. 후기고딕 여성복 타이트 레이스와 봉제방법. From Crofoot et al. (2006). p. 170.

서 사용되어진 색채의 대비 효과 중에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자극을 주는 색상 대비, 한난 대비, 보색 대비를 사용하였다. 붉은색 헤드 드레스에는 색상 대비의 효과를 주어 캐릭터를 노란색으로 표현하였고 녹색 헤드 드레스에는 보색 대비의 효과를 주어 캐릭터의 색채를 분홍색으로 채색하였다. 그리고 푸른색 헤드 드레스에는 한난 대비의 효과를 위해 캐릭터를 노란색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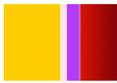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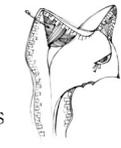
양식화 혹은 단순화된 선의 사용은 색채를 더욱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는 효과뿐 아니라 작품이 더욱 현대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미지의 전달이 가능하다.

윤곽선을 강조하던 시대 양식에 맞도록 대비의 효과를 투명과 불투명으로 해석을 하였고 시각예술의 한 장르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효율적인 표현을 위하여 선, 색, 형태가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투명한 아크릴 판을 바탕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 소재는 당시 회화에 인체를 이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측면 구도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몽환적인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헤드 드레스에 주로 사용된 문양은 당시 가문을 상징하던 문장의 상징성을 제외한 장식적인 미의 추구에만 중점을 두고 표현하였다.

후기고딤 시대는 십자군원정과 백년전쟁으로 인해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직물과 의복의 재단법과 봉제법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복식과 헤드 드레스의 장식은 더욱 화려하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패션을 대표하는 요소인 실타래, 바늘, 보빈(bobbin), 실크 핀을 작품의 주요 표현 소재로 사용하였다. 또한 헤드 드레스의 표현 소재인 실타래는 패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징적인 요소로서 머리카락과 유사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을 통해

Table 2. 작품 계획표.

번호	모티브 소스	표현 소재	색채	소재	사이즈	스타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통형 에빙 • 친밴드, 프론트넷 • 헤드 드레스 장식 		아크릴 판, 아크릴 물감, 페인트 마커	지름 50cm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빙 형태 • 버터플라이 베일 • 대깡 장식 		아크릴 판, 아크릴 물감, 페인트 마커	지름 50cm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뿔형 에빙 		아크릴 판, 아크릴 물감, 페인트 마커	지름 50cm, 지름 12cm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뿔 형태 • 레이스 베일 		아크릴 판, 아크릴 물감, 페인트 마커	지름 50cm	 S

독창적인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초상화의 6가지 특징을 활용하되 본 연구에서는 초상화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던 여성 헤드 드레스를 중심으로 후기고딕 양식의 장식적인 면모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작품 계획은 <Table 2>와 같다.

2. 작품 제작 및 해설

1) 작품 1

작품 1은 후기고딕 시대의 대표적인 유화작품 중 하나인 『Portrait of a Young Woman』을 참고하였으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형태를 차용하였다. 후기고딕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따른 이 작품 헤드 드레스의 특징은 아치형의 이마와 원통형 에넵이 있다. 작품은 원통형 에넵을 중심으로 표현하였고 넓은 이마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프론트 넷과 에넵을 감싸는 형태의 밴드의 이미지 또한 사용하였다. 헤드 드레스에 표현된 색채는 신의 대리인의 색상인 붉은색 계열로 표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캐릭터는 노란색을 사용하여 색상의 대비 효과를 주었다. 사용된 윤곽선은 곡선과 직선을 패턴화하여 단순하게

표현하였다(Table 3).

2) 작품 2

작품 2는 후기고딕 시대의 초기 네덜란드 양식의 대표적인 초상화 작품인 『Portrait of a Woman』을 참고하였으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형태를 차용하였다. 후기고딕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따른 이 작품의 특징은 아치형의 이마와 헤드 드레스인 에넵의 변종형식 버터플라이 두식 형태를 차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작품은 다소 긴 원통형 에넵을 중심으로 표현하였고, 버터플라이 형태 33.96%의 두식의 이미지 또한 사용하였다. 헤드 드레스에 표현된 색채는 후기고딕 시대의 대표적인 색상 중 영원한 충실함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캐릭터는 노란색으로 표현하였고 보색 대비의 효과를 주었다. 양식화된 조형미가 특징이었던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곡선과 직선을 기하학적으로 패턴화하여 표현하였다 (Table 4).

Table 3. 작품 1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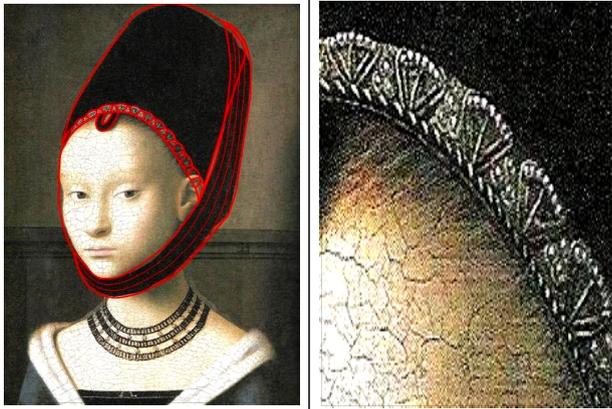
모티브 소스	스타일
	

Table 4. 작품 2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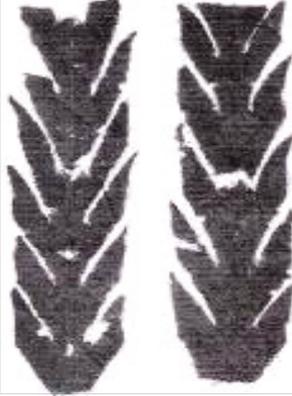
모티브 소스			스타일
			

Table 5. 작품 3 전개.

모티브 소스			스타일
			

3) 작품 3

작품 3은 후기고딕 시대의 초상화인 『Portrait of Maria Portinari』을 참고하였으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형태를 차용하였다. 이 작품의 특징은 아치형의 이마와 이 시기에 과장된 수직선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독창적인 헤드 드레스인 원뿔형 에넵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높아지던 수직선의 독특한 관념이 표현되어 있다. 작품은 원뿔형 에넵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헤드 드레스에 표현된 색

채는 영원한 충실함을 상징한 푸른색을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며, 보색 대비 효과를 위하여 캐릭터는 노란색으로 채색하였다(Table 5).

4) 작품 4

작품 4는 후기고딕 시대 초상화 혹은 회화의 거장인 반 에이크의 『Portrait of Magarete van Eyck』을 참고하였으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여성용 헤드 드레스의 형태를 차용하였다. 아치형의 이마와 양뿔 형태의 두식, 레이스 베일의 조형미를 표현하

Table 6. 작품 4 전개.

모티브 소스		스타일
		

였고 이는 인체의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인 선의 조형미를 보여준다. 영원한 충실함을 상징한 푸른색을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며, 캐릭터는 붉은색 계통의 분홍색을 사용함으로써 한눈 대비 효과를 주었다(Table 6).

IV. 결론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히 착장한 의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뿐 아니라 패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하거나 작가의 감성, 개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색채와 형태로 표현하는 시각예술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고딕 시대의 인물과 의상의 개성과 특징이 창의적으로 표현된 초상화를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후기고딕 초상화의 특징 6가지인 측면 구도, 헤드 드레스의 장식성, 환상적인 문양, 섬세한 아웃 라인, 양식화된 인물의 표현, 색채의 대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헤드 드레스는 인물의 캐릭터와 아이디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임을 알 수 있었으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이 가능하였다.

둘째, 후기고딕 양식의 초상화의 특징인 측면 구도와 인물의 부각을 위한 섬세한 아웃 라인 등 양식화된 표현을 응용한 결과 고딕 후기의 독특한 예술적 감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후기고딕 초상화에 나타난 헤드 드레스의 조형미를 응용한 결과 역사적 패션 아이템이 현대적 디자인과 조형 표현의 풍부한 모티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후기고딕 회화의 감각적이고도 강렬한 색채 대비의 성격을 응용한 결과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에 강렬하고 장식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다섯째, 가문의 문장을 응용한 장식의 패턴 사용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었고, 가문이라는 상징성을 벗어나 새로운 장식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창의적 발상과 표현, 혹은 패션의 의상뿐 아니라 다양한 장식적 요소를 소재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스타일

제안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시각예술로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함에 있어 폭 넓은 발상과 다양한 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를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미래의 사회와 예술, 문화 전반을 이끄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Ahn, B. G. (2003). *Dictionary of fashion*. Seoul: Kyung Choon Publishers.
- Choi, S. Y., & Kim, H. K. (201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aper cut-out technique to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2), 97-109.
- Crofoot, E., Pritchard, F., & Staniland, K. (2006). *Textile and Clothing (1150-1450)*. London: The Boydell Press.
- Durand, J. (2006). *L'art âge au Moyen de* [Age art of the Middle] (Cho, S. E., Trans.). Seoul: Namubooks.
- Jeon, S. J. (1994). *A study on changes of western women's hair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K. W., & Chang, D. R. (2006). A study of goth image expressed in fashion illustration.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6(2), 77-91.
- Kim, M. J., Kim, Y. H., Ko, H. Z., Choi, S. H., Choi, H. S., & Ha, J. S. (2010). *Western fashion multi-contents*. Gyeonggi: Gyomoon Publishers.
- Kim, M. K. (2002). *A study on the textile design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Gothic modes of a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S. (2007). *루브르와 오르세의 명화 산책* [Taking a walk through masterpiece in Louvre and Orsay]. Seoul: Maroniebooks.
- Kim, Y. S. (2013). *영화 의상* [Movie Costumes]. Seoul: Communicationbooks.
- Laver, J. (1982).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 Lee, S. Y. (2006).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ake-up appeared on Italian renaissance paint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O'Neill, J. P. (1987).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Europe in the Middle Ages*.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Park, Y. S. (2007). *Gothic art*. Seoul: Jaewon.
- Sung, K. S. (2009).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ndy Warhol's fashion illustration.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9(3), 81-96.
- Vaughan, W. (2011). *The Encyclopedia of World Artists* (Shin, S. R., Trans.). Seoul: Bookroad.
- WIKIMEDIA COMMONS. (2005). File:Hans Memling - Portrait of Maria Portinari - Metropolitan Museum of Art.jpg. *WIKIMEDIA COMMONS*. Retrieved April 13, 2013, from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ns_Memling_-_Portrait_of_Maria_Portinari_-_Metropolitan_Museum_of_Art.jpg
- WIKIMEDIA COMMONS. (2011a). File:Jan van Eyck - Portrait of Margareta van Eyck - WGA7618.jpg. *WIKIMEDIA COMMONS*. Retrieved April 10, 2013, from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an_van_Eyck_-_Portrait_of_Margareta_van_Eyck_-_WGA7618.jpg
- WIKIMEDIA COMMONS. (2011b). File:Petrus Christus - Portrait of a Young Woman - Google Art Project.jpg. *WIKIMEDIA COMMONS*. Retrieved April 13, 2013, from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etrus_Christus_-_Portrait_of_a_Young_Woman_-_Google_Art_Project.jpg
- WIKIMEDIA COMMONS. (2013). File:Pisanello, medaglia di cecilia gonzaga, ve, recto.JPG. *WIKIMEDIA COMMONS*. Retrieved April 10, 2013, from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isanello_medaglia_di_cecilia_gonzaga_ve,_recto.JPG
- Zuffi, S. (2011). *Grande Atlante del Rinascimento* [Renaissance Art: God and human] (Ha, J. E., & Choi, B. J., Trans.). Seoul: Maronie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The Study of Fashion Illustration Applying Head Dress of Late-Gothic Portraits

Park, So Youn · Kim, Hye Kyung[†]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Fashion illustrations are considered as Visual Communication expressions by visualizing the fashion images or expressing into the colors and forms through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based on artist's sensibility, personality, and experience. These attempts were originated from the painting of Late gothic-era where the characters and costumes were expressed creatively. In terms of the paintings of Late Gothic-era, the secular and fantastic topics were in fashion, as well as the religious purpose. And artists would express the garment which were not worn by persons or drawn things that did not exist, through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As such, the creative character-expression was enabled by exaggerating and distorting the human body, which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various illuminated manuscripts and portraits. Regarding the portrait in the period, profile portraits were developed, as the God-centered ideology changed into the humanistic thoughts. This ambiance mainly appeared as the form of side upper-body where the expression of ideal beauty was possible rather than realistic description, in the pose of figures. The color contrast effect to highlight the figure and the decoration expressed in the head dress could be fully reinterpreted with a modern sense. In this study, fashion illustration works were created by applying the head dress of Late-gothic having the abundant possibility which could propose the artistic value and style using various ways of expression. Through research findings, six kinds of features about the Late-gothic portraits could be drawn and head dress reflecting such characteristics most properly was found out as the significant motive to emphasize personalities and characters also it may be reinterpreted in a modern sense. The meaning of this trial lies in proposing the creative ideas, expressions of fashion illustration and the style of illustration utilizing diverse decorative elements as a material, and improving its artistic value.

Key words : Late-gothic, Gothic art, portrait, head dress, fashion illustration